

(續 建築 너 뒀고) 人類의 軌跡과 建築軌跡의 理解

■ Essay

Understanding the Trace of
Mankind & Architecture
by Choi, Chang-Kyu

“사람들은 “삶” 自体를 眞摯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建築을 생각하고 보고 接近해야
建物を 理解할 수가 있다.”

崔昌奎

건축사사무소 신진

인간이 살아가려면 하고 싶은 말도 많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말도 안했다고 해서 할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되어 가는 느낌이 든다.

인간은 매일 살고 있으면서 그 생활자체나 환경이나 의식에는 몹시도 둔감한 것 같다. 오직 정치요 경제요 인기요 투기에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생활자체의 의식이나 환경에 대한 또는 그런일에 종사하고 천직으로 알고 있는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말을 들어 보고자 하지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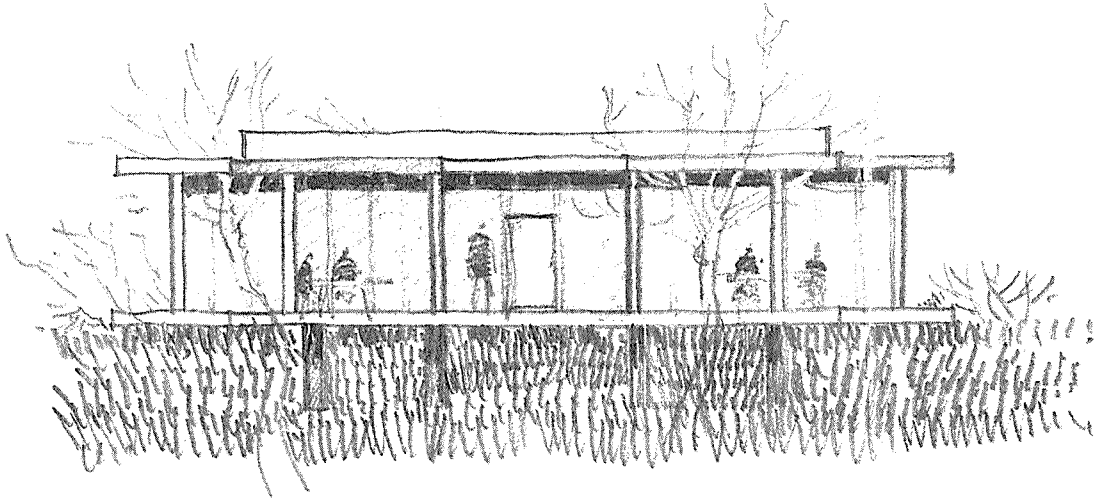
이제 새삼 “나의 建築觀”이니 “建築家の 辯”이니 하는 따위의 제목은 붙일 필요도 없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한다.’, ‘나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의 것. ‘건축이란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닐까요?’라는 정도의 자신없는 思念들은 拙文으로 좀 써볼까 한다.

현대인들은 謙讓은 값싼 타협이라고들 한다지만 그래도 미덕임엔 틀림없는 일이다.

“니이체”는 “인간은 일찍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의해 자라났다. 구태여 인간이란 桎梏”을 떼어 버리려 하지말라. 대자연이 脫皮를 요구할 때 스스로 벗겨진다.”라고 동양적인 자연순응적인 말을 하고있다. 우리를 키우고 살게 하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들의 생활환경이다. 건축이란 바로 이 인간들의 생활환경을 결정하고 淸澄하게 만들어 내는 일이다. 따라서 인간에 관한 모든 일을 다루어야하고 관계해야 하고 창조해내야 하는 일이 된다. 사회적,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 생리적 등등의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인간환경은 제한된 시간내에(한사람의 일생)에언이나 해결한다고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는 건축가들을(통털어서) 당돌한 무리들, 이상가들, 이상한 기인들로 알고 있다. 또 건축가들은 건축가들대로 사회가 그들을 이해 못한다고 부정하고 사회가 그들을 배신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들이 사회를 불신하게 되면서부터 늘 현재에 살면서도 미래의 태아로서 자처하고 오직 인류의 미래니 지역의 생활환경이란 단위를 목표로 形成力을 기르고 지적인 과정과 수단으로서 태아인 스스로를 자생시켜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변에는 보편적인 문명의 목적을 이해관계나 경쟁이나 厚顏無知한 상식적인 습관을 만들어내고 사명과 도덕은 사회적능으로서 특권을 만들어내는 조직이나 정치, 전제나 실재, 합리와 효능이 빚어낸 기계나 과학의 문명이 사이버권을 사회상식으로 했을 뿐만아니라 공해라는 인류멸망의



毒素나 부조리나 不信 不勞에로의 射率性같은 추악한 장애물들이 너무도 범람해서 건축가들의 가혹한 미래로 향하는 행로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하다고 해서 건축자체가 그 추악한 것으로 인해 소멸해지거나 멸망할 수도 없길래 그런 것들을 직업으로 가질 수 밖에 없었고, 건축을 택했고 인류의 문제되는 모든 일에 제안하고 예언하고 또 조형하는 것이다. 人類生活環境의 淸澄을 위한 시도나 표현은 건축가들 직업이요 권한이요 先慧요 본능인 것이다. 그들은 그런 문제들을 두려워 하지도 않고 문제시하지도 않는다. 오직 그것을 해결할 施案과 可能性을 표시하고 표현할 뿐이다. 이러한 施案들은 제 1차 성공을 암시하는 가장 의욕적인 징조인 것이다.

인간은 여간해선 만족을 못하는 동물이다. 만족을 못하기에 도전이 있고 試圖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전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간들의 행동이 훗날 인간을 멸망시킨다고 해도 늘 인간생활을 위해서라는 대전제가 붙어 있게 마련이다. 현대 19세기초부터 이러한 산업혁명이나 기계문명과 미래의 과학문명의 눈부신 발전들은 놀라움기는 하지만 피상적인 만족과 감동을 가지고 왔지만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해라는 달갑지 않은 것도 같이 가지고 왔다. 고귀한 인간생명을 위협하는 공해나 人間自滅을 내포하고 있는 핵무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정치도 경제도 과학도 아닌 종교와 예술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즉 인류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조는 대량생산이나

대량소비가 결국은 공해원인이고 보면 또는 平安과 慰樂과 實利만이 인간 행복의 요소가 될 수 만은 없다고 본다면 결국은 고도화된 原始主義에로의 復歸思想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인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터인데도 현실과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고, 온천이다. 산이나 바다에 가보았자 마음을 비우고 오지는 못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환경을 창조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고 있는 건축가들을 사회는 우습게 알고 저버리고 있지만 그들은 머지않아 건축가들을 절실하게 필요로하고 원할 것은 틀림없다. 사회는 그들을 버렸다가 불신했다가 다시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이유는 건축가는 끝까지 이 지구상에 살아남으려면 청정한 생활환경이 필요하고 그 환경을 건축가들이 창출해 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는 장구하지만 그의 대부분이 親할 수 없는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에 人間化한 秩序를 창조해 온 인간노력의 기록들이고 동시에 인간들이 속삭이고, 중얼대고, 외치고, 울부짖은 수많은 언어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창조적인 언어만을 수록한 것이 人類歷史일진데 자연환경과 동화할 수 있는 인간생활상의 발견! 더욱 쾌적하고 청정한 인간들의 생활환경의 창조가 즉, 그 언제인가 성실한 언어로서 인류역사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믿어야만 하겠다. 여기서 인간들은 성실하게 창조한다는 것에 대한 진의를 알게 되면 인간을 위한 생활환경문제를 어떤 기술적인 문제와 같이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며

감정, 인격, 사상, 권태와 호기심을 컴퓨터도, 정치가도, 종교도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建築家(藝術家)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늘 반정치적이고 반종교적이 되고 정치와 종교는 상대적으로 반예술적이 되어 있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건축가는 그들의 자질과 영감과 손과 인격과 재능으로서 기계문명이나 과학문명의 盲點을 파헤치고 그 위험성을 미연에 대비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공해와 싸우고 소멸시킬 의무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건축가는 해결수단의 풍부성에 반하여 목적 불확실성에 관한 원칙은 건축을 저해한다는 것과 무의미한 희생이나 충성심을 요구하는 따위의 이상이나 이념을 연구해 내는 것보다도 環境이나 造形問題에 腐心하고 虛勢와 偽善과 宣傳만이 充溢한 사회에서도 대중이나 시대가 요구할 때만이 건축을 창조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함이 아닌 남을 위한 즉, 인류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의 경제성에서도 그러하거나 건축이 예술이라는 진의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건축가는 자신의 자질과 영감도 필요하지만 사회나 대중의 원망이나 자극없이 무력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것은 건축가 사회나 인류의 원망의 가장 충실한 창조적인 매개체임을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과연 인간이 요구하는 건축이란 어떤 것일까? 인간이 소망하는 환경이란 어떤 것일까? 책에 써 있는대로 안일하고 편리하고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것일까? 선인들의 체험에서 얻은 즉흥적인 규범적인 의미를 가진 術語에 충실한 것일까? 혹은 예술의 본질에서 우리나라는 정의에 符合된 것들일까? 이러한 의문은 무한히 연발될 수 있고 어느것이 가장 정당하다고 단언할 성질의 것도 못된다.

건축자체가 지니고 있는 多系複合한 의의는 이런 몇개의 규범이나 정의나 조건따위로서 규정지을 수도



「時間+空間」이 인간의 생명이라면 바로 그 공간과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 建築學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엔 수많은 학문이 있다해도 인간의 생명과 장래를 다루는 건축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해와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소중한 부분임을 이해할때 건축가들의 자부과 의무의 귀중함은 자각해야만 할 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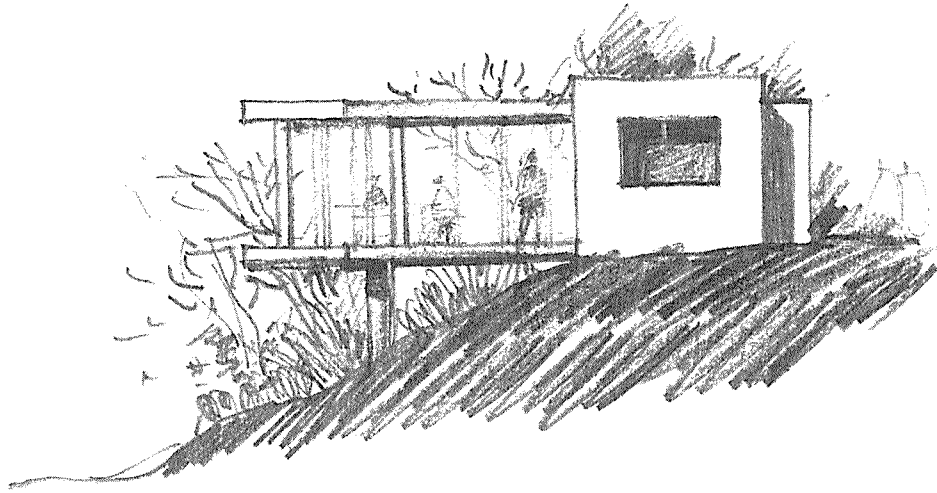
없는 것이다.

무의식에서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의 범위를 초월해서 구차스러운 속박이나 여건을 떠나서 초인간적인 경지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며 여기에 공학과 경제와 또는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오게 마련인 즉 문제는 더욱 복잡하기만 하는 것이 된다.

특히 인간환경이란 문제가 시도됨에는 심리학, 미리학, 생태학, 사회학, 경제학, 과학 등등의 복합적인 반영이 가미되어야만 하겠는데 그러면서도 試圖하기 때문에 시간과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없고 그 시간의 長短如何에 따라 건축가의 일생이 한정되어 있으니 자기가 생존시에 所期의 결과를 보겠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건축자체가 끝까지 시도임에 결과를 바라는 것조차 우둔한 일이 된다.

현실적인 면에서 간단히 “좋은 건축이란” 질문에 간략한 대답으로서 건축가와 건축주와 시공자와 + α 가 호흡이 합치되었을 때라고 할 수 있겠지만 + α 란게 문제가 된다. 그 α 란 사회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건축법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우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보면 三者+ α 의 호흡일치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다. 때문에 現今의 수많은 건축물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는 건축주나 시공자이외에도 대중의 건축에 대한 몰이해, 심미도의 貧困, 권력의 횡포, 기타 사회적인 모략이나 질투 등 인간사회의 추악한 모든 것들이 건축에 대해 集中影響力을 주고 있으니 건축의 갈길은 험난할 뿐이다. 더불어 사회적인 제한, 규정, 법령이나 벌칙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장해조건들이 純粹建築의 시도를 가로막고 있는 現今이다. 건축주들의 범문서나 청구서로서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 한(건축은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은 아니므로), 명령이나 지시로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 한(건축가는 대중의 부하나 병졸이 아니므로), 돈만 주고 요구조건만 제시하면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 한(전문가는 신이 아니므로), 절대적인 권력이나 절대적인 경제력이 건축을 이룩할 수 있고 믿는 한에 있어서는 훌륭한 건축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근자에 와서는 歐美各國에선 「建築은 이미 使用이나 目的以前的 空間藝術이다.」 또는 「現代建築은 結果보다도 그 過程과 手段이 더 重視되어야 한다.」느니 즉, 공간과 시간이 현대건축의 주요기본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은 현대의 建築哲學에서 인간의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생명을 정의하기를 「時間+空間=生命」이라는 원리에 基因함을 알 수가 있겠다. 이러한 사조들은 彼岸의



火災가 아닌 인간사회의 哲理라면 우리에게도 마땅히 적용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생각이나 말들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의문과 공포같은 것마저 느껴지는 것이다.

「時間+空間」이 인간의 생명이라면 바로 그 공간과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 建築學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에 수많은 학문이 있다해도 인간의 생명과 장래를 다루는 건축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해와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도 그 소중한 부분임을 이해할 때 건축가들의 자부과 의무의 귀중함은 자각해야만 할 줄 안다.

인류의 문제점은 많다. 가난과 疾病, 不幸과 不便, 不信과 不條理, 資本과 利潤, 努力과 效率, 自由와 平等. 冷戰과 核武器, 知慧와 公害. 言語와 宗教. 人種과 國家 等等의 엄청난 문제들은 제아무리 不可解라 할지라도 인간들이 저지를 일들이기에 신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 오직 저지른 인간 자신들만이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능력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험난한 문제들의 해결이나 처리를 정치가나 교육가, 종교가들이 해낼 것이라고 믿을 수도 없다.

오직 있다고 한다면 高邁한 原初的 思想으로서의 藝術家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만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가능성과 현실과는 긴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사회에서 온천이나 산이나 바다에 가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판국에 한가닥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종족이 예술가들이라는 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도 긴 시간강성이 加担해 주어야겠고 어떤 발언,

어떤 방안, 어떤 말들을 발견못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제안하고 발언하고 실천하는 부족이 바로 건축가인 것이고 이때까지의 건축의 역사가 그러했고 일면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의 지식과 자원으로서 실현 가능한 정도보다 늘 수준이 낮은 건축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 가능성과 현실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증거인 것이다. 그러므로해서 건축은 미래의 아름다움으로의 환경으로만을 지향하고 묵묵히 진행하는 進行詞인 것이다.

인간에 알맞는 환경은 인간이 단순하게 원하는 것만은 아니다. 자존심이나 본능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태리의 건축의 거장 Gio Ponti 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고급이고 최상이라는데 대한 형용사는 “건축적이다”라는 말 뿐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인간의 존엄성에 알맞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일은 전인류의 집중된 노력으로서 우리의 환경을 창조해 내는 일 뿐인 것이다. 건축가란 이런 일을 목표로 삼고 또 그 목표로 향해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자기를 위해서만의 예술을 한다거나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한다거나 예술속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스스로 예술을 사랑하면 그때 예술은 그의 신통력으로 이 사회를 구원할 것이다.

무릇 창작이라 함은 그 작가의 내부에 은밀한 감동으로 그의 全知全力을 경주해서 이룩되는 것인데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건축을 볼 때 타 부문의 數多한 예술과는 달리 計算, 技術, 材料, 構造等, 工學的인 면이 다분히 가미되므로 한 공간을 점유하고 표현되는 미술(繪畫)이나 공간은 점유하면서 외부공간을

“

존재에도 이유야 있겠지만
 생존에는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전제나 사명같은 것이 있음은 확실하다.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 무엇이
 건축가로서는 창작이 되는 것으로서
 우주만물을 신이 창조했다고 한다면
 공간조형을 창조한다는 창조라는 뜻에서는
 건축가는(모든 예술가는) 신과 동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경외하게도 창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

형성하는 彫刻보다도 건축은 공간을 점유하고
 내부공간을 창조하고 외부공간을 구성까지 하는 즉
 공간조형이 되는 것으로 또는 음악이나 회화같이
 90% 이상이나 원형과 동일하게 복사, 녹음되게
 수십만개의 양산이 가능한 것에 비해 건축의 원형은
 오직 하나 뿐이라는 점이다. 동일한 설계도면으로
 近便에 건립했다손 치더라도 그 환경과 재료와 위치가
 동일할 수가 없고 向이나 분위기마저도 완전히 다르게
 마련이다. 사진이나 모형을 만들었다 해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 사진속이나 모형속에서 인간이 일을
 하거나 생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은
 Original 은 원형 하나 뿐이라는 점이 다르다. 사진,
 회화, 연극 등도 원형이야 하나 뿐이고 순간뿐이지만
 복사되면 필요에 따라서 再演, 反覆해야 하므로서
 순간예술이라고 까지 부르는 수도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은 유일하게 複寫나 同二가 없는
 純粹性을 가진 본연의 예술의 표본이 되는 것이다. 어느
 때인가 기억할 수 없지만 사진작가가 “건축이
 藝術이라면 寫眞도 藝術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웃은 일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건축이 설 땅에는 수많은
 隘路가 있다. 즉 요구한 자연환경 속에서 日增月躍하는
 변화무쌍한 인간생활을 담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는
 기술발전과 비례해서 인간의 현존질서를 변조시키고
 기존개념의 왕국은 멸망시켜가고 권위를 낮게해서
 더욱 지능적인 분과작용과 양산을 촉진시켜서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조성했고 하여간 지구상에 기술이 나타나
 이래 무엇인가 끝장이(人類) 나기 시작하는 것만 같다.
 물론 오직 건축의 탓으로 돌릴 것만도 못되지만
 社會大流속에서 오직 건축만이 唯我獨尊할 순 없다는
 이야기다.

현대 건축가들은 건축을 하나의 직업으로 看做하고
 있으나 건축이 직업으로 되어갈 때는 이미 그 건축은
 예술과는 먼 거리에 있게 된다. 자기의 생의
 방법으로서(생업) 예술을 한다면 이는 예술의 모독이요
 또 예술 본연의 순수한 체질에 위배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뿐더러 원초 예술의 發祥始初가 어떤 목적이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었고 다만 권태와 무료와 여유에서,
 인간본능에서 시작되었고 (그런 것이 예술적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예술이 인류역사와 동시에
 그 발단이 있었다는 점과 인류역사를 오늘날까지 끝까지
 버티고 서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건축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 지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가지고 행동을
 계속하지만 의미없는 무가치하게 살아 있다는 것은
 생존과 존재의 의미로서 구분 되어야 하겠고 물론
 존재에도 이유야 있겠지만 생존에는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전제나 사명같은 것이 있음은 확실하다.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 무엇이 건축가로서는
 창작이 되는 것으로서 우주만물을 신이 창조했다고
 한다면 공간조형을 창조한다는 창조라는 뜻에서는
 건축가는(모든 예술가는) 신과 동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경외하게도 창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近代建築思潮에서 근대건축은 기능적이어야
 한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다. 건축에서의 기능의 비중은
 비대해가지만 한다. 그런데 이 기능적이라는 단어에는
 오해도 많은 것 같다. 원래 기능적이란 개념은
 實用目的의 총족에서 가치의 영역까지의 복합체를
 意味內容으로 하는 개념이어야 할 것이고 形의 주어진
 과제와 內的 諸條件의 총체로서 부터 많이 산출해
 내리는 생각의 구체화를 의미해야 할 것이고, 최종적인
 形이 豫知된 것이 아니고 合目的思考와 목적에
 관계없는 사상과의 創造的 交流에서만 발견되어야 할
 터인데 안일과 편리만을 즉흥적으로 고안하면
 기능적이라고 하고 사용목적에만 총족되면 또는
 목전의 경제적 조건만 해결이 되면 현실적 과정에서
 수단이 간편만 되면 기능적이다 라고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만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고 있다.
 건축은 하나의 시도의 표현이다. 시도나 표현에는
 어떠한 규제나 표준이 있을 수 없다. 완전하게
 자유분방해야 할 터인데 규격이나 방법의 범위가 생기고
 하물며 요구조건이 명령조로 나오고 있다. 이럴때
 어느쪽이 강자이고 어느 편이 약자인지는 우리 현실에선
 자명한테 약자의 정당한 요구는 그 발언이 강경해도
 애원에 지나지 않고 강자의 요청은 그 목소리가 아무리
 유순해도 명령이 되는 마당에서야 건축가의 자유로운
 창작이 나온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도시환경의 창조문제도 건축에 속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이라는 분야로서 근래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건축가가 구상했던 또는 창안했던 도시가 과연 자유로운 주장에서 대담하게 되어가고 있는가? 즉 창작의 순수성에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건축과 동일하게 많은 회의를 품게 하고 있다. 일례를 들어보면 도로가 하필이면 국유지나 공유지나 하천부지로 가야 하는가? 이는 토지의 地上所有權이 私有인 경우엔 토지보상의 비용이 건설의 비용의 몇 배가 소요되므로 그 사업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규제하에서 과연 자유분방한 도시계획이 창안될 수는 없는 것이고 진정한 도시계획이란 바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진정한 도시계획이 이루어 질려면 먼저 토지의 지상소유권의 해방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게 된다. 더우기 토지의 지상소유권의 해방이란 그 나라의 정치이념의 변경이란 큰 문제와도 관계를 가지게 된다. 건축을 비롯한 모든 예술은 예술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즉 構造性, 造形性, 持續性, 忠實性, 時間性, 幼想性, 등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게 마련이다. 기계는 기술의 산물이요, 건축은 위상의 산물이다. 기계는 내일 더 아름답고 효능 좋고 값싼 것이 나오면 오늘의 것은 즉석에서 폐품이 된다. 그렇지만 건축은 많은 思潮와 流波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그전의 것을 버린 일은 없다. 오히려 공존해 왔다. 바로 이런 점이 예술과 기계(기술)와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상에서도 정치가와 과학자와의 결탁은 과학자와 종교와의 결탁은 세상을 위태롭게 한적이

많다. 그러나 정치가와 건축가와의 提携는, 건축가와 과학자, 건축가와 종교와의 提携는 인류를 위해 이로우면 이로우니 해친 일은 없다. 건축가란(우리 사회에선 별로 불리워 지지도 않지만) 사회의 諸般問題를 의심하면서도 蹄念하지 않고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을 탐구하고 동시에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건축가란 그저 묵묵히 미래를 꿈꾸며 순수애로의 길로 걸어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다만 사회의 대중은 건축을 마치 난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회속에서 그 사회의 일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떼어 놓을 수 없는 생활환경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는 것만 같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해에 노력한다면 사회상황은 현저하게 달라질 줄 믿는 것이다. 中世以前만해도 건축에 관한 기능공이니 특수공이니의 따위는 없었다. 현세에도 지방의 오지마을에선 전마을 사람들이 협력해서 주택을 짓고 차남의 분가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도시에서 단독주택이나 APT에서 살려면 주거인은 거의 주택이나 건물자체에 손하나 대지 않는다. 돈만 주고 계약과 약속으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이다. 자신들이 살 건물에 자기들은 손하나 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축도 아니다 백화점에 가서 뭐하나 사다 쓰는 그런 개념이나 의식이라면 구태여 건축이니 건물이니라 말할 필요도 의미도 없는 것이 되고 말 수 밖에 없게 된다. 《完》